1. 용산 참사나 쌍용 자동차 노동자 폭력 진압에 관한 이야기를 조사해보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적어보기

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참사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. 처음 이 과제를 위하여 자료조사를 할 땐 인터넷에 정보가 흩어져 있어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. 그래서 사건 당일 경과부터 그 배경까지 찾아 보았다.

용산 참사는 사망자 6명, 부상자 23명이 발생한 참사이다. 애초 조합과 철거민 사이에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려 하니 당연히 철거민 측에서 보상비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, 점거농성을 진행하였다. 이 때문에 테러진압 특공대가 투입되었다. 이때, 망루에 인화성 물질이 있음을 보고했으나 특공대 측에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. 여러 생각이 들었다. 철거민들이 잘못한 게 아닌가? 아닌가? 고위 권력의 탓인가? 하지만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만 고려하면, 그들은 10년 이상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. 그러다 날벼락을 맞았다. 도시정비사업을 한댄다. 법이 이상하다.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들이 저질러졌다.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.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.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했다. 얼마 후 특공대가 들이닥쳤다. 모두가 많이 다쳤고, 그에 따라 징역살이를 했다. 희망이 있었다. 출소하면 진실을 밝혀내자. 하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하였다. 무관심한 상황 속 농성을 같이 했던 우리는 서로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며 싸워갔다. 그래도 진실 공방의 과정이라 생각했다. 10년 넘게 동고동락한 사람이 죽었다.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밝히고 싶다. 아직도 겨울이 되면 몸이 떨린다. 또한 여기서 쫓겨나 어느 변두리로 가도 재개발이 시작되면 다시 쫓겨나게 될 것이다. 너무 무섭다. 나에게 죄라면 열심히 산 죄 뿐인데 열심히 산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지로 몰아넣는지 모를 일이다. 과연 미관과 집값 등을 고려한 재개발이 나, 그리고 동네 주민들, 나아가 국민의 생존권보다 중요한 것인가. 난 이 나라에서 먹고 살고 싶은데. 그거 하나면 되는데.

당신이 왜 굳이 완벽해지기를 바랐던 것인지, 그 기원을 찾아볼 것.

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속상한 모습을 보는 게 싫었다. 학습된 싫음인지 본성이 그랬던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엄마가 눈치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. 엄마가 속상한 모습을 보는 게 싫었던 나는 엄마가 하라는 공부를, 어렸을 때부터 울어가며 참아가며 했고, 응당 칭찬을 받으니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20년을 살았다. 열심히, 공부를. 주위에선 모범생이라고 날 받들었다.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. 난, 칭찬이 좋았다. 현재의 나는 심각한 결정장애다.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는 줄 알았다. 무엇을 하고 싶은가? 왜 하고 싶은가? 하고 싶은 게 맞는 건가? 이런 생각들이 든다. 또한 지금도 완벽해지기를 바란다. 학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. 이 아쉬움은 도대체 무엇인가. 현재의 부모님은 나에게 학벌 상관없다 하신다. 그럼 이 아쉬움은 뭔가?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가? 아니면 어릴 적부터 오빠에게 들어왔던 그 무수한 말들 때문이었을까. 생각해보니 난 주위의 말들에 의식한다. 엄청. 이를 적는 지금도, 여전히, 갈등하고 생각한다. 물론 최선의 선택이란 없는 걸 안다.

1. 당신이 당신으로써 순수하게 행복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목록을 만들어 볼 것.

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족들과 휴일마다 놀러가서 번데기 한 컵을 다 먹은 기억

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

엄청 배고프고 짜증났는데 맛있는 단 것들이 내 입으로 들어올 때

새벽 한 시 독서실 끝나고 집에 오는 길, 하루 할 것들을 다 하고 초과했을 때

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볼 때

물건을 후회없이 구매할 때

볼펜이나 샤프 쇼핑할 때

음악을 들을 때

미래에 대한 행복한 상상을 할 때 (빅히트에 입사하여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친구 맺기,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)

엄마가 행복할 때

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 (늑대소년)

운동 한 후 땀날 때 씻기, 갈증날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기